

다산포럼



김정남 언론인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니 부모가 살아 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하늘을 우러르고 사 람을 굽어보아 부끄러움이 없으니 이것 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천하의 영재를 얻 어 가르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라.”

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맹자의 인 생삼락(人生三樂)이다. 이보다 더 유교적 인 중자의 삼락이 있고, 무위자연의 철학 을 담은 노장(老莊)의 그것도 인구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

언젠가 우연히 함석헌 선생의 인생삼 락을 읽은 적이 있다. 문명이 파산을 하고 세상 끝 날이 내다보여 하늘나라가 가깝 다던 말씀이 분명해지니 이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늙은 아내 전신불수 7년에 시중을 내가 드는데, 만일이라도 처지가 바뀌었다라면 하는 생각을 하니 아야말로 두 번째 즐거움이요, 재판장에서 서서 법정 뒤에 은은히 보이는 십자가를 보고 암루(暗淚)를 삼키며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

함석헌 선생과 인생삼락(人生三樂)

서” 할 수 있으니 이것이 세 번째 즐거움 이라.

그가 20세기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사 상가요 종교인이었으니 그의 첫 번째 즐 거움은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즐거움은 그 의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면모를 새 삼 돌이켜 보게 하거니와, 법대에 앉아있 는 판사들을 보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 서” 할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라 니 다소 의외다.

‘사상계’ 필화사건에서부터 3·1 민주국 국선언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시국 사건의 법정에 섰던 그가 그때의 느 낄이 오죽이나 절실했으면 그것을 인생 삼락 중의 하나로 꼽았을까. 자신의 안위 보다 시험에 든 판사들을 연민하는 그 깊 고 짙은 마음 씀씀이가 놀랍다.

얼마 전 함석헌 선생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한 그 “저들”에 대한 얘기를 한 일간지가 집중 취재해 보도한 일이 있었 다.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재심을 권고한 확정 판결 중 재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난 224건의 형사사건을 담당했던 판·검사 들의 행적을 추적한 내용이다. 당초 이 사 건을 담당했던 378명의 판사 가운데서 고 범부장판사가 21명, 법원장이 45명, 대법 원장이 8명, 대법관이 25명,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1명 나왔고, 검사 127명 가운데 서는 지검장 등 검사장이 22명, 검찰총장 이 3명, 법무부 장관이 3명, 대법관 2명, 헌 법재판관이 2명 나왔다고 한다.

30여 년에 걸친 군사독재 시절, 이 나라 법정에 단 한 번이라도 가서 방청해 봤던 사람이라면, 그때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 이다. 이들 판사와 검사들이 진실로 인간 의 존엄과 인권, 그리고 그들이 즐겨 말하 는 법의 정의를 지키려는 의지를 눈곱만 큼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조작 사건이 저렇게 많이 양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수사기관의 불 법 구금과 고문 행위를 모를 수 없고, 판 사 또한 의지만 있다면 피고인들이 주장 하는 인권침해 사실을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사건을 조작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거나 (검사), 피고인들의 눈물 어린 호소와 울 부짖음에 눈감음으로써 사건 조작에 사 실상 동조(班助)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 그렇게도 많은 간첩조 작 사건이 나왔다. 조작과 오판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높이 출세 하거나 승진장구한 것이 대한민국 사법 계의 슬픈 현실이었다. 조작된 간첩 사건들이 재심에서 속속 무죄가 되고, 사건 조작의 전말이 밝혀지 고 있는데도, 그 사건들을 담당했던 이들 판·검사들은 기억이 나지 않거나나 주 심이 아니었다는 말로, 그들의 잘못을 애 써 부인하거나 발뻠하고 있다. 심지어 대 답을 피하거나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과묵한 탓인지 모르지만, 이들 판·검사 가운데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 고 사과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아직 들 어보지 못했다. 2007년 9월 대법원장의 형식적인 과거사 사과만이 있었을 뿐, 검 찰은 그것마저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들의 행적과 행태에서 우리로 하여 금 더욱 안타깝고 슬프게 하는 것은 그들 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다. 부끄러움이야말로 양심과 도덕의 원천이요, 정의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 는 기본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서 부끄러움이 없어졌다. 그들은 부끄러 워하기는커녕 이명박·박근혜정부에 들 어 오히려 더 기고만장하는 느낌이다. 부 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곧 불의가 승리하 고 기회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는 것 과 다르지 않다.

브레히트(Bertolt Brecht)는 나치 치하 에서 살아남은 것조차 부끄러워 저 유명한 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썼다. 민족시인 운동주는 잃어버린 조국에서 기아(飢餓) 처럼 태어난 것이 부끄러워 ‘서시’(序詩)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 는 괴로워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부끄러움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인간성 의 기초이다. 함석헌 선생이 살아 계시다면, 암루를 삼키며 다시 한 번 이렇게 말 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저들을 불 쌍히 여기소서.

기 고

‘병역 규제’ 적극 개선한다



박창명 병무청장

로 그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병무 행정을 관장하는 수장으로써 참으로 고 맵고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이들이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는 대단히 밝고 희망적 이다.

병무청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청년들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민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의 교육소집 본인선택제를 시행해 지정 업체와 의무자들의 일정을 고려한 교육 소집으로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강화하 였고, 재징병검사 대상자가 검사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 하였다. 또한, 육·해·공군 모집 관련 규 정을 통합해 지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였 으며, 약학대학생의 재학생 입영연기 제 현행규정을 27세로 완화해 의·치·한·수 의학과 학생과의 형평성 및 이들의 학습 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에게 불편을 초 래했던 규제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선하였다.

병무청은 올해도 병역이행 전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불편 규제를 병역 의무자 중심으로 개선해 국민의 병역이

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 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올해 규제개선 중 점 추진과제로 다음의 5가지를 선정, 추 진할 계획이다.

첫째, 학력사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 상자의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도록 개선 할 것이다. 고되나 중졸 학력의 신체건강 한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 준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 복무요원으로 병역처분을 하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현역병입영 대상 신체등위에 해당하고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현역병으로 병역처분 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 진할 계획이다.

둘째, 병역이행분변경 사유를 현재의 ‘수 형 등’에서 ‘수형자’와 ‘그 밖의 사유’로 구분해 구체화함으로써 군복무 곤란자와 수형자의 전역근거가 같이 적용됨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셋째,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 전환 복무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현역 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지원이 불 가하다. 이를 개선해 현역병 지원일자 30 일 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 정, 전환복무 지원자격에 대한 규제를 개 선함으로써 병역이행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사관학교에서 퇴교자가 현역병 외의 신분으로 복귀된 경우 2년 이내에 복무하는 경우에 한해 퇴교 전에 받은 군 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고 있으 나, 복무시점과 관계없이 퇴교 전 군사훈 령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다섯째, 병역중의 교부방법을 정보통 신망을 이용해 조회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징병검사때 나 라사랑카드를 교부해 카드 내에 병역중 을 탑재하고 있으나, 병역의무자가 카드 안에 탑재된 병역중의 확인 및 갱신이 불 가해 민원불편을 초래하였다. 이에 지난 해 9월부터 병역처분 후 병역의무자의 이 메일로 병역중을 자동 발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관련법을 개정해 병무청 홈페이지 를 통해서도 병역중을 조회·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모든 정책을 추진 할에 있어 항상 국민의 요구와 정책에 귀 를 기울이고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정책 을 앞도 놓고 국민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국민 행복’과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 들기’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다.

社 說

어등산 개발 재추진 결국은 공공성 저버리나

사업자들의 경영난으로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이 민간 사업자 공모(민자 유치) 방식 으로 재추진된다. 기존 숙박시설은 대 폭 줄이고 상가시설을 늘려 사업자 이 율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현재 어등산 개발사업은 골프장만 들 어선 가운데 유휴지 개발은 10년째 지 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 성 추진 전담팀(TF)을 꾸렸으며, 교수 와 공무원 및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 된 전담팀은 1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최 근 용역 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했다.

용역 결과, 이미 예상됐지만 기존 사업 계획은 696억 원의 적자가 나는 등 경제 적 타당성이 전혀 없어 대폭적인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 개발 조건에서 사업자 이윤을 보장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재추진되는 어등산 관광단지 에서 숙박시설은 예초 14만5000여㎡

에서 1만6000여㎡로 10분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대신 상가시설은 2만 4000여㎡에서 13만여㎡로 5배가량 늘 었다. 사업자에게 적정 이익을 보장하 기 위해 사업 계획을 축소하는 바람에 광주시 숙원사업인 특급호텔 건립 등 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어렸던 민자 유치를 전제로 한 만큼 상가시설 확대가 어느 정도 필요하 는 점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는 당초 광주시가 밝힌 기본 원칙과는 거리가 있으며 지나치게 효율만 강조하다 보 면 공공성이 침해될 소지가 많다는 점 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는 이달 중으로 전담 팀을 사업 추 진 민관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5월까 지 시민 공청회와 토론회 및 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한 다. 아무쪼록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세세하 게 밝힘으로써 다시는 특혜 시비가 일 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빛고을 광주에서 ‘빛 공해’ 민원 늘고 있다니

최근 광주 지역에서 너무 밝은 조명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겪는 ‘빛 공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휘황한 네온사인이나 가로등 그리 고 보안등이나 옥외광고물에서 뿜어 나오는 과도한 빛이 수면과 농작물 생 육을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이다.

시와 5개 자치구에 접수된 옥외 조명 시설에 의한 빛 공해 민원은 지난 2013 년 164건, 2014년 168건에서 지난해 423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빛고을 명 품도시인 광주의 빛에 가린 어두운 면 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피해 사례는 시민들의 수면 장애를 비롯해서 바·공 등 농작물 생육 부진으 로, 대부분 가로등을 비롯한 지자체가 관리하는 조명시설이 원인이다. 광주 에서는 지난 2014년 말 기준으로 총 12만 4759개의 옥외 조명기구가 설치돼 있 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가로등·보안등 9만3262개, 광고 조명시설 3만1415개, 장식조명 82개 등이 설치돼 시민의 일

상인 빛 공해에 노출돼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허용치를 초과한 시설을 당장 규제할 수 없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시가 옥외 조 명시설 빛 공해 규제 전 단계로 지난 2014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측정 지점 90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허용 기 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광 주는 빛 공해를 규제할 수 있는 조명한 경 관리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데다 규 정을 만든 이후에도 5년간 유예돼 시민 들은 당분간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명환경 관 리구역을 연내에 지정기로 했다고 한 다.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옥외 조명 시설을 관리할 방침이어서 다소 나아 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도한 빛 또 한 대기·수질 오염이나 소음 등 일반 공해 못지않게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 는 만큼 당국은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無 等 鼓

“...우주에 관한 한 인류는 완벽하게 귀머거리이다. 중력파는 중력의 소리 이다. 중력파를 감지하는 순간 우리는 마침내 우주를 ‘듣게’ 되는 것이다.”

영국 과학 저술가 마커스 초온은 최 근 펴낸 ‘만물과학’에서 중력파(Gravitytional wave)를 이렇게 설명했다. 대 부분의 사람들은 지상에서 1G(Gravity·중력단위의 중력에 적응해 살고 있 다. 그렇지만 광년(光年) 단위로 거리를 표기하는 우주에서의 중력 개념을 일반 인들이 온전히 이해하

는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 내에서는 시간이 느려지고, 중력에 의해 빛이 휘 어지는 등 중력은 시공간을 비틀어 놓 는다고 했다.

천재적인 한 과학자의 이론은 인류 의 과학 발전을 비약적으로 도약시켰 다. 그리고 그의 이론 중 일부는 당대나 현재까지 직접 실험을 통해 증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앞섰던 모양이다.

아인슈타인이 1세기 전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예측했던 ‘중력파’의 존재가

확인됐다. LIGO(고 급 레이저간섭계 중 력파관측소) 연구진

중력파

은 최근 중력파의 존 해’로 불린다. 1666년은 뉴턴이 ‘만유인 력의 법칙’ 확립과 미적분법의 발견, 광 정으로 태워진 가슴은 큰 시련도 수용하 게 된다.

중력파는 블랙홀 충돌과 같이 큰 질량의 천체가 가속운동을 할 때 발생 하는 ‘시공간의 일렁임’이라고 한다. 이번 중력파 검출에 한국 과학자들도 힘을 보탰다는 소식이 반갑기만 하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아인슈타인 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우주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뉴턴은 “나는 이 제 우주 구조의 틀을 보여 줄 수가 있 고” 자신했다. 하지만 239년 뒤 아인 슈타인에 의해 물리적 시공간에 대한 기존 이론은 완전히 뒤집힌다. 그는 빛

를 최초로 직접 검출했다고 발표했 다. 중력파는 블랙홀 충돌과 같이 큰 질량의 천체가 가속운동을 할 때 발생 하는 ‘시공간의 일렁임’이라고 한다. 이번 중력파 검출에 한국 과학자들도 힘을 보탰다는 소식이 반갑기만 하다. 요즘 바쁘게 살다 보니 고개를 들어 밤하늘 한번 올려다보기 어렵다. 코페르 니쿠스, 갈릴레이, 뉴턴, 아인슈타인을 잇는 LIGO 과학자들이 있기에 모래 한 알에 불과한 미미한 지구에서 우주의 이 치를 깨칠 수 있는 귀를 갖게 됐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교단에서



김진구 우산중학교 교감

인생은 국·영·수로 시작해 음·미·체로 끝난다

위에 앉아 열은 밤안개와 더불어 통소를 부는데 구슬픈 소리와 분위기, 삼통의 한 서린 심정이 절절하게 어우러진 그 장면 을 잊을 수 없다.

어린 생각에도 약기 하나가 저렇게 사 람의 마음을 달래고 표현할 수 있구나. 삼 통이의 짝한 처지보다는 통소 소리의 애 절함에 반해서 나도 어른이 되면 반드시 통소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살아가 면서 때때로 답답하거나 슬픈 마음이 생 기면 통소를 불렀다고 다짐하면서 극장 문을 나선 것이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어 제같이 선하다.

악기에 대한 꿈은 이리해서 시작되었 다. 오랫동안 마음만 먹고 있다가 교직 에 들어와서 단소나 대금을 만지게 되었 고 지금은 아코디언과 하모니카에 머물 러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신통치는 않다. 학생시절 음악시간에 한 가지 악 기보다 더 열심히 배웠으며, 타향살이나 동요 몇 곡으로 해매는 나의 연주 실력 이 더 확산되지 않았을까 괜히 핑계를 생각해 본다.

어릴 때의 체험이나 독서는 평생 영향 을 끼친 것 같다. 어린 시절 남에게는 하 겠게 보이는 일도 큰 느낌을 받았던 기억

들 한두 가지는 있지 않는가. 감동 깊은 연수를 받거나 책을 읽으면서 메모도 하 고 실천 의지를 다지지만 나이가 들면 의 속해진 일상의 습관으로 인해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나이가 어릴 수록 경험하고 꿈꾸는 일들은 실행으로 옮기는 확률이 높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릴 적 어떤 계기로 각성을 하거나, 몸소 체험하 어 꿈을 키운 경우가 아니던가. 파릇파릇 청춘들이 오갈 데 없는 이 답답한 시대에 그래도 한 가지 방법은 학생들에게 체험 마당을 더 넓혀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 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주어야한 다고 생각한다.

올 3월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시작 된다. 명칭 자체가 매우 상징적이다. 기존 의 틀이 얼마나 단단히 ‘무인화기제’였 으면 제목이 ‘자유학기제’이겠는가. 학생들 은 자신의 진로나 미래의 직업에 대해 탐 색해 보고, 하고 싶은 것들을 체험해 보는 기간이 될 것이고, 교사는 각 교과 특성에 따라 수업 방법 자체가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진로가 설정되면 집중하게 되고, 학습량이 줄어들며, 많은 교내의 활동의 방향성이 잡히게 된다. 이러한 활동이 꿈

의 실현 과정이며, 꿈이 있기에 좌절하지 않는다. 꿈은 뜨거운 열정을 일으키고, 열 정으로 태워진 가슴은 큰 시련도 수용하 게 된다.

그리고 대학입시에서 면접이나 자기 소개서의 핵심은 언제, 어떤 계기로 선택 한 학과에 관심을 가졌고, 중·고 시절 어 떤 노력과 활동을 했느냐이다. 그래서 자 유학기제는 몇 년 후 진학과도 깊은 관계 가 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대입 원서 를 앞도 놓고 내신이나 수능 점수에 맞춰 결정할 진로와는 차원이 다르다. 아울러 은퇴 후 수십 년을 또 살아야하는 장수시 대의 터득이기도 하다. 휴가도 일에 치 이고 심신이 녹아날 정도로 업무에 시달 릴 때 소중하고 꿀맛이지 않았이 연속된 휴가는 휴가가 아니라 병가가 될 가능성 이 많다. 자유학기제는 자기에게 맞는 일 이나 취미생활로 긴 휴가를 대비하는 기 간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 인생은 국·영·수로 시작해서 음·미·체로 끝나지 않던 가.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학생 의 질문과 교사의 발문이 가득한 교실이 되어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확산되 기를 바란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편 집 부 2200-649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FAX 227-0195)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